

# 북한 개발 소식

# 09

2018 September

통권 155호

| 이달의 주제 |

북한 선교 현장의 변화와 우리의 기도



한국오픈도어 북한선교연구소

월간

# 북한 개발 소식

2018 August

## CONTENTS

이달의 주제 :

북한 선교현장의 변화와  
우리의 기도



01

권두칼럼  
북한 선교현장의  
변화와  
우리의 기도

08

칼럼 1 · 김종구  
중국교회 이해를 위한  
'(新)종교사무조례'의 고찰

17

칼럼 2 · 노사명  
러시아 연해주에서의  
북한 선교 가능성과  
한계점

21

칼럼 3 · 정베드로  
해외 탈북민 사역



25

탈북민 수기 · 드보라  
나의 출애굽기(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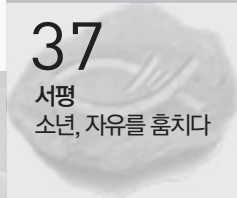
30

북한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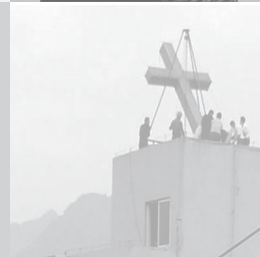
37

서평  
소년, 자유를 훔치다



40

기도제목



# 북한 선교 현장의 변화와 우리의 기도

오픈도어선교회 북한선교연구소

근래 한반도에 불고 있는 정치적인 혼풍은 한반도 평화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북한의 비핵화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한반도 상황은 전면적으로 바뀔 것이다. 북한과 통일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높아지는 와중에 교회와 성도들도 그간 잊고 있었던 북한과 통일에 대한 선교적 비전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 세상에서는 한반도 평화에 따른 경제적 이득을 주로 이야기한다면 교회는 한반도의 평화와 함께 북한의 영혼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어떻게 하면 북녘의 영혼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위로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향하시는 그곳을 향해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을까? 한반도의 평화 무드는 믿는 우리에게도 더 큰 선교적 비전을 꿈꾸게 하는 계기가 된다.

그렇지만 정치적인 무드는 언제고 급변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반도의 선교적 비전을 단순히 먼 미래의 것으로만 두어서는 안된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따라 바로 지금부터 최선을 다하는 것이 성도의 도리일 것이다. 그렇다면 최근 북한선교 현장의 실태는 어떠한가?

정치적인 기대감과 달리 선교 현장에는 여전히 크고 작은 난관이 산적해 있다. 직접 선교가 어려운 북한의 특성상 북한의 주변 국가들을 통해 선교 사역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주변국들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현재로서는 선교 활동에 우호적이지 못하다. 미래에 대한 장밋빛 전망에 앞서 지금 현재 북한 선교 현장의 상황을 알고 현장에서 맞닥뜨리고 있는 난관을 극복하기 위한 간절하고도 긴급한 중보의 기도가 요청된다.

## 중국의 선교 환경 변화와 북한 선교

중국은 북한 선교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선교 현장이다. 북한과 압록강과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약 1500km의 긴 국경선으로 맞닿아 있는 중국은 지리적 특성상 북한 선교의 교두보 역할을 수행했다. 그렇지만 해가 갈수록 중국을 통한 북한 선교는 많은 난관에 부딪치고 있다.

그간 북한선교에 어려움이 되었던 점은 북한과 중국의 특별한 밀월관계에 기인한 바가 크다. 중국은 북한 정권의 입지와 처지에 맞춰



탈북자를 단속하고 북한 정권이 흔들리지 않도록 물밑에서 상당한 협조를 해왔다. 국제사회에서는 탈북자를 경제적 또는 정치적 이유로 본국에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거나 또는 돌아가더라도 심대한 처벌을 받는 것이 명백하기에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중국은 여전히 탈북자들을 불법 월경자로 간주하고 탈북자들을 붙잡아서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고 있다. 또한 탈북자들을 돕는 선교사나 중국인들에 대해서도 국경법 위반 등을 물어 처벌해왔다. 근래에는 국제 여론을 의식한 듯 전과 같은 핏박은 아니지만, 여전히 탈북자에 대한 강제북송은



〈압록강 인근에 설치된 중국측 철조망의 모습〉

계속되고 있고 압록강과 두만강 지역의 탈북을 방지하기 위한 T자형 철조망 설치 및 각종 방법 장비 설치 등 탈북을 차단하는 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북한 관련 최근 문제가 되는

부분은 중국의 정책 변화이다. 17년도 초반부터 중국은 한국 선교사들에 대한 대대적인 추방을 진행해왔다. 처음에는 한국의 미 사드배치에 대한 보복성 조치가 아닌가 생각되었다. 그러나 중국의 한인 선교사 추방은 현 시점까지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진행되고 있다. 이제는 추방 조치를 한중 관계 보다는 시진핑 정권의 정책 기조 변화라는 측면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19차 당대회와 18차 전인대 등을 통해 시진핑 정권은 당의 권위와 당에 의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라는 이름 아래 당 내부적으로는 개혁으로 건설적인 당으로 탈바꿈 하고 당 외부적으로는 정치·경제·사회·문화·환경 등 모든 분야를 공산당의 통치이념으로 이끌며 공산당의 당장(당헌)과 국가헌법에 따라 통치를 하겠다는 당의 통치력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당 개혁과 통치의 정점에 시진핑이 핵심으로 존재하는 것이다.<sup>1</sup>

이러한 기조 속에 종교문제에 대해서도 당의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변화하고 있다. 중국은 올해 2월 1일부터 신(新) 종교사무조례 시행에 들어갔다. 신(新) 종교사무조례는 이전에 시행되었던 종교관련 규제에 비해 훨씬 넓은 분야에 대한 다양한 규정을 담고 있다. 이 법의 내용을 살펴보면 종교 학교에 대한 규정이 대폭 늘어났으며 종교 활동 장소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1 김진호, 2018, “시진핑 집권2기 신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 분석: 한중관계를 고려하며”, 세계지역연구논총 36집 1호, 68-75.

법적 수속과 함께 허가를 득하도록 하였다. 특히 종교참여자가 아닌 단순히 장소를 대여해준 건물주에게도 벌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많은 가정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성직자들은 반드시 종교 교직 인원으로 국가에 등록이 되어야 하며 미등록자의 종교 활동 주관은 불법이다. 오프라인 뿐 아니라 온라인에 대한 단속도 강화되어 기존의 불법 종교 단체, 학교, 활동, 인쇄물에 대한 단속뿐 아니라 SNS 까지 단속 대상으로 추가되었다. 공익자선단체를 통한 포교도 금지되었으며 종교활동을 관리, 통제, 감독 업무도 향(鄉)급의 말단 행정부가 주관하고 촌민 위원회, 주민 위원회가 협조하도록 명시하여 작은 마을들까지 종교 정책이 효과를 보도록 하고 있다.<sup>2</sup>

중국 당국은 국가 통제를 벗어난 종교 활동을 철저히 단속할 뿐 아니라 중국교회가 해외교회나 단체와 관계 맺지 않도록 차단하는데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특별히 중국 당국은 조선족 교회들에 대해 한국의 교회나 단체와 어떤 교류나 관계도 맺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한국에서 출판된 성경이나 신앙서적을 보거나 쓰지 못하도록 하고 적발될 시 처벌을 가하고 있다. 그동안 대부분 한국에서 출판된 성경을 사용해왔던 조선족 교회들은 예기치 않은 곤란에 처해 있다.

외국인이라고 해서 안심할 수 없다. 중국 국가

종교사무국은 올해 5월 외국인에 대한 종교활동 관리법을 공포했다. 외국인에게 자국 내 집단 종교활동은 규제하는 이 법안은 50명 이상의 외국인이 조직하고 참가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중국 내 외국인이 종교시설 등에서 집단 종교활동을 하려면 집회 주최자를 적어도 3명 이상 임명해야 하며 주최자는 범죄전력 등 개인신상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또 외국인은 종교시설에서 열리는 집단 종교활동에 대해 지방 종교당국에 신고하고 참가자들의 신상정보,



〈2014년 중국 당국에 의해 철거된 저장성 원저우 시 산장그리스도교회〉

종교활동 개요 및 임시 개최지에서 열릴 경우 장소 자격요건과 안전도 등의 정보까지 제출해야 한다. 또 행사가 열리는 종교시설에서 지정한 중국인 주재로 진행돼야 하며 외국인이 주재하는 경우 시설 측은 지방 종교 당국에 미리 알려야 한다. 이 밖에 외국인이 조직한 집단 종교활동에 중국인이 참여할 수 없고 지방 종교조직에서

2 김중구, 2018, “(新)종교사무조례와 중국 기독교”, 웹진 중국을 주제로 18년 7월호, [http://www.chinatogod.com/main/z2s\\_c\\_v.php?no=4139&ctg\\_no=191&div=2](http://www.chinatogod.com/main/z2s_c_v.php?no=4139&ctg_no=191&div=2)

임명한 중국 종교인만 예외로 규정했다.<sup>3</sup>

중국의 종교 관련 법령 강화는 북한 선교에도 큰 장애가 된다. 중국이 종교 관련 법령을 강화하고 특히 외국인에 대한 관리 규정까지 확충했다는 사실은 중국 정부의 통제 의지를 보여준다. 신분을 숨기고 중국에서 비밀리에 관련 사역을 전개해오던 많은 선교사들이 당국의 레이더망에 걸려 추방되는 일이 계속 빈번하게 일어난다. 중국 내 한인 교회도 큰 피해를 입었고 문을 닫은 곳도 많다. 북한 선교에 참여해온 현지 조선족 교회들도 큰 어려움에 부딪혔다. 중국 당국에서 금하고 있는 북한 선교에 참여할 경우 강도 높은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조선족 교회는 북한 선교를 위해 한국 교회와 협력 관계를 가지고 선교 활동에 최선을 다해왔지만

당국의 더욱 엄격해진 통제 앞에 선교의 동력을 위협받고 있다.

### 러시아의 선교 환경 변화와 북한 선교

중국을 통한 북한 선교가 점점 어려워지자 러시아를 통한 북한선교의 가능성이 점점 심도있게 논의되고 있다. 러시아는 북한의 오랜 우방으로 직간접적인 교류가 상당하다. 특히 북한의 노동자들이 러시아에 적게는 3만여명에서 많게는 5만 3천 이상이 파견된 것으로 추정될 만큼 많이 파견되어 있다.<sup>4</sup> 이들은 북한 당국의 통제 아래 정해진 작업장에서 주로 근무하지만, 북한 당국이 이들의 임금 대부분을 가져가기 때문에 추가적인 잔업을 여러 작업장에서 수행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이들의 모습을 어렵지

않게 여러 작업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북한 사람들을 직접 가까운 거리에서 볼 수 있다는 점 하나만으로도 러시아를 통한 새로운 북한 선교의 희망이 높아지고 있다.

그렇지만 현실은 그리 낙관적만은 않다. 먼저 러시아는 북한과 오랜 친선을 바탕으로 탈북자 문제에 있어서도 북한 측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 러시아와 북한은 2016년 2월 2일 ‘불법 입국자 및



〈2014년 김정일의 특사자격으로 러시아를 방문한 최룡해 전 노동당 비서(현 조직지도부장)와 푸틴 러시아 대통령〉

3 쑨빈, 2018, “법 개정을 읽으면 중국의 내심을 알 수 있다”, 웹진 중국을 주께로 18년 6월호, [http://www.chinatogod.com/main/z2s\\_c\\_v.php?no=4109&ctg\\_no=190&div=2](http://www.chinatogod.com/main/z2s_c_v.php?no=4109&ctg_no=190&div=2)

4 이상신, 오경섭, 임예순, “북한 해외노동자 실태 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2016), 14.

불법 체류자 송환·수용에 관한 정부 간 협정'을 체결했다.<sup>5</sup> 이 협정은 불법 월경이 의심되는 사람이 합당한 서류를 소지하지 않고 있으면 체류국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송환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탈북자들에 대한 난민 인정이 아닌 불법 체류에 따른 추방 조치를 실시할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러시아의 종교 정책도 걸림돌이다. 러시아는 표면적으로는 오랜 기독교 전통을 가진 국가이다. 비록 공산주의를 표방할 당시에는 모든 종교가 탄압을 받았지만, 공산주의 붕괴 이후 러시아는 정교회를 중심으로 한 오랜 기독교 전통을 국가적인 정체성으로 수용하는 분위기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독교 전통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선교환경은 매우 열악하다. 러시아는 주기적으로 종교법을 제정하고 개정함으로써 국가 내에 종교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특별히 2016년 6월에는 신종교법이 테러방지법의 일부로 국회를 통과하여 1달만에 전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갔다. 기본적으로는 극단주의 이슬람과 연관된 테러 세력 억제를 위해 제정된 신종교법은 허가되지 않은 선교 활동과 전도를 금하는 법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내용은 국가에 등록된 장소에서만 다른 사람과 신앙을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이다. 러시아 당국은 국가에 등록되지 않은 장소에서 이뤄지는 거의 모든 종교

활동에 선교나 전도라는 꼬리표를 붙일 수 있다. 법의 특성상 러시아 정교회는 해당 단속에서 제외되지만 같은 기독교라도 개신교 교회를 비롯한 소수 종파들은 해당 법의 저축을 받는다. 해외 선교사의 경우는 종교비자를 받아야만 러시아 내 종교 활동이 가능하며, 그것도 등록된 교회에서만 사역이 가능하다. 이러한 상황에 따라 러시아에 파송된 선교사님들의 상당수는 오랜 기간 러시아에 체류하며 정식으로 영주권을 취득하고 종교비자를 받아 선교 사역을 진행하고 있다.

러시아를 통한 북한 선교는 잠재적 가능성 만큼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일차적으로 러시아의 북한 노동자들에게 접촉하고 관계를 맺고 복음을 전하는 그 자체가 쉽지 않다. 북한 노동자에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북한에서 파견된 보위성 간부들의 감시와 통제를 피해야 하고 북한 노동자들의 정치적 민감성을 의식하는 러시아 당국의 감시도 피해야 한다. 그런 가운데 러시아의 종교규제까지 고려해야 하니 한국 선교사로서 러시아에 체류하면서 북한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녹록치 않은 일이다. 만약 북한 노동자들에게 전도 활동을 하다가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선교사는 종교비자가 취소되고 추방되기도 한다. 수십년간 공들여 일군 선교 사역이 하루아침에 중단될 수

5 한국일보, “러·북, 불법 체류자 송환 협정 체결…탈북자 강제 송환 위험”, 2016.02.03

있는 것이다. 사역 대상이 된 북한 노동자들의 신변 안전도 보장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를 통한 북한 선교를 바라는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주의와 지혜가 필요하다. 최근 북한 관련 아웃리치 팀들 중 상당수가 경제가 삼엄한 북중 국경 지역 대신 러시아로 방문지를 변경하고 있다. 북한 사람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또 오랜 민족적 아픔이 잠들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북한 선교에 있어서 러시아의 가치가 점점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잠깐 방문하는 아웃리치 팀의 부주의한 말과 행동이 잘못하면 오랜 기간 조심스럽게 공을 들여 사역하고 있는 현지 체류 선교사들의 기반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다.

## 기타 지역과 북한 선교

북한 선교에 의외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지역은 바로 동남아시아다. 탈북자들의 주요 탈북 루트 중 하나가 바로 중국에서 동남아시아를 통해

한국으로 오는 경로이기 때문이다. 탈북자들 중에는 중국에서부터 복음을 받아드리고 신앙을 키운 사람도 있지만 중국을 벗어날 당시만 하더라도 신앙이 없었다가 한국으로 오기 전 동남아 등지에서 생활하면서 선교사님과 성도들의 섬김과 헌신에 감동받고 신앙을 가지게 된 경우도 상당히 많다. 보통 동남아에서 한국행 전에 2-3개월 정도를 체류하게 되는데 탈출로 인한 긴장이 어느정도 풀린 상태에서 집중해서 성경을 공부할 수 있다. 한국에 가기 전에 진지하게 예수님과 복음에 대해서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더욱 의미가 있다.

물론 동남아까지 갔다고 해서 무조건 안전한 것은 아니다. 먼저 중국에서 국경을 넘는 일이 쉽지 않다. 중국의 탈북자 단속은 북중 국경뿐 아니라 동남아 국경지역에서도 활발하다. 올해 3월에도 7명의 탈북자가 중국 쿤밍에서 붙잡혔다.<sup>6</sup> 중국 남부 국경도시인 쿤밍은 탈북자들이 한국행을 위해 베트남이나 라오스 등 동남아 국가로 이동할 때 거치는 지역이다. 동남아 일부



〈2013년 5월 라오스에서 복송된 고아들 9명의 복송 전 모습(좌)와 복송된 후 북한 방송에 출현해체제 선전에 동원된 모습(우).〉

6 자유아시아방송, “탈북자 7명 중국서 잇따라 체포...복송 위기”, 2018.03.18




국가들의 태도도 어려움을 준다. 태국 등 탈북자에 우호적인 국가에 도착하면 대체로 안전하게 한국행이 가능하지만 중국과 국경을 맞닿고 있는 관련 국가들은 종종 탈북자를 북송시키기도 한다. 실례로 2013년 탈북 고아 9명이 라오스까지 탈출을 성공했으나 결국 라오스에서 추방당하고 북한으로 강제송환된 사건이 있었다. 북한은 러시아와 그랬던 것처럼 라오스와의 탈북자 송환 협정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sup>7</sup> 동남아 국가들은 대체로 탈북자 체포, 북송에 적극적이지는 않지만 북한과 외교관계가 있는 경우 남한행 이전에 북한 측에서 손을 써서 탈북자를 잡아 북송시키기도 한다.

많은 탈북자들이 한국에 들어온 다음에는 생계에 대한 걱정과 불확실한 미래, 또 낮은 환경에 대한 적응의 어려움 등을 호소한다. 선교사님의 헌신을 통해 탈출하여 한국까지 왔더라도 그간 제대로 된 신앙 훈련과 성장의 시간을 가지지 못한 경우 삶의 분주함 속에 신앙을 잃는 경우가 많다.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탈북자들이 신변의 위협 없이 삶과 신앙을 고민하는 중간 기착지에서의 시간은 매우 소중하다. 그렇기에 동남아시아 또한 귀한 북한 선교의 현장이다.

## 북한 선교를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의 필요성

선교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언제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와 수고, 헌신으로 이루어져왔다. 북한 선교도 마찬가지이다. 많은 선교사님들과 현장 사역자들이 여러가지 방법으로 한 영혼이라도 더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역해왔다.

세상에서는 남북관계 개선과 북핵 폐기를 통해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에 한발자국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다. 북핵 문제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고 평화적 분위기가 형성된다면 분명 북한 선교도 변화가 있을 것이다. 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사역의 문이 열릴수도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장밋빛 전망과는 별개로 북한 선교는 여전히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이것도 구하고 저것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미래의 긍정적 변화만 기대하며 가만히 앉아있을 수만은 없다. 지금 주어진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북한 선교에 나서야 한다. 선교 현장의 상황에 대한 교회와 성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가 필요한 때이다. 

7 서울신문, “北, 러시아 이어 라오스와의 ‘탈북자 송환’ 협정” 2016.03.06

# 중국교회 이해를 위한 ‘(新)종교사무조례’의 고찰

김종구 선교사 (빌리온선교회 대표)

## 글을 시작하며

최근 중국교회를 강타하고 있는 (新)종교조례는 2017년 6월 14일 국무원 제 176차 상무회의에서 수정 통과, 같은 해 8월 26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으로 공포, 2018년 2월 1일 시행하고 있다. 이전과는 달리 이번에 공포된 (新)종교조례는 유예기간도 없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게 동시다발적으로 전국에서 시행하고 있다. 이에 중국교회 특히 가정교회들은 심각한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

작금의 오늘날 중국의 도시가정교회들은 세계선교의 비전을 품고 홍콩, 한국, 태국 등지에서 선교중국대회를 진행하며 중국교회의 선교동원을 시도하고 있었다. 그러나 신종교조례의 여파로 인해 중국교회가 받을 내디디던 세계선교의 행보도 불가피하게 수정을 해야 할 위기에 직면하였다.

이 글에서는 현재의 중국교회를 이해하기 위하여 필요한 (新)종교사무조례에 관한 내용과 의미를 비교적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며, 신종교조례의 시행 이후 중국교회가 당한 어려움들, 그리고 중국교회의 세계선교에 미치게 될 영향을 살펴볼 것이다.

## II. 중화인민공화국의 신종교사무조례

### 1. (新)종교사무조례의 내용<sup>1</sup>

2018년 2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新)종교사무조례는 2004년 ‘제 426호 문건’이 공포 된 후, 중국 공산당 정부가 12년 이상 시범지역과 시범 대상을 중심으로 실험과정을 거치며 연구하고 보강한

1 이 글에서는 2004년 국무원령으로 공포된 ‘제 426호 문건’을 ‘(구)종교사무조례’라 칭하고, 2017년 8월 26일 국무원령으로 공포하고 2018년 2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조례를 ‘(新)종교사무조례(宗教事務條例)’로 칭한다.

것으로 종교문제에 관한 상세한 법적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新)종교사무조례는 총 9장 77조로 구성되어 있다. (구)종교조례에 비해 훨씬 많은 조항이 신설되었고, 특별히 ‘종교학교’는 별도의 장(제 3장)을 신설하여 강조하고 있는 조항이기도 하다. 이제 신종교사무조례의 주요 내용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 제 1장 총칙

제 1조에서는 ‘종교업무 법치화의 수준을 제고(提高)하기 위하여’ 라고 (新)조례의 제정목적 밝히고 있다. 즉, 종교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을 알 수 있다.

제 6조에서는 종교사무 관리를 하급기관, 즉, 향(鄕)정부까지 업무를 관장하도록 하였고 그 하급기관들은 이 업무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여 전국의 작은 마을까지 종교와 그 활동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였다. 이 항목은 지금까지 통일전선부와 종교국 관할이었던 종교문제를 말단 행정부서까지 관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 6조: 향(鄕)급 인민 정부는 본 행정 구역 내의 종교 사무관리 업무를 해야 한다. 촌민위원회(村民委員會), 주민위원회(居民委員會)는 법에 의거하여 인민정부 종교 사무 관리에 협조해야 한다.

### 제 2장 종교 단체

제 7조: 종교 단체의 성립, 변경과 취소는 마땅히 국가사회단체관리의 관계 규정에 따라登記해야 한다. 종교 단체는 마땅히 국가사회단체관리의 관계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2 중국의 행정조직은 23개의 성(省), 5개의 자치구, 4개의 직할시에 수평 분할하여 성급(省級), 시급(市級), 현급(縣級), 향급(鄉級)이라고 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제 7조에 따르면 (구)조례의 ‘사회단체등기관리조례’에 의거하던 것을 ‘국가사회단체관리’로 변경하여 종교단체 관리를 국가차원의 사무로 격상시켜 강화한 것을 볼 수 있다

제 9조: ....임의의 조직(가정교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혹은 개인은 인원을 선발하여 파견할 수 없으며, 종교 관련하여 유학 후 귀국한 인원을 수용할 수 없다.

제 9조에서는 허가되지 않은 단체(가정교회를 지칭하는 것)나 개인이 유학생을 선발하여 파견하는 것이 불법이며, 위의 경로를 통해 종교관련 유학 후 귀국할 경우 그들을 종교기관에서 수용하지 못하도록 명시함으로 해서 정부의 허가를 득하지 않은 가정교회 소속 지도자들의 해외 유학자체를 금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 제4장 종교 활동장소:

제 23조: 종교 활동장소는 법인(法人) 조건에 부합하고, 소재지 종교 단체의 동의와 현(縣)급 인민정부 종교 사무부문의 심사 동의 후에, 민정 부문에서 법인 등기를 한다.

제 30조: 종교 활동장소 외 지역에 대형 옥외 종교 조상을 허락하지 않는다.

종교 활동장소에 관련된 내용은 (新)종교사무조례가 특별히 강조하는 부분으로 중국정부의 확실한 규제나 통제의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향촌(鄉村)정부의 요구에 부합할 것과 대부분의 가정교회가 충족하기 힘든 ‘법인(法人)의 조건’에 부합하고 ‘법인등기’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2015~16년 절강성 온주지역 교회의 십자가 철거사건을 떠올려주는 조항으로 옥외설치 종교상징물에 대한 규제도

포함하고 있다. 모든 종교 활동장소에 대해 향급 정부를 경유하여 현급 정부의 허가를 득하도록 하고 있다.



〈중국 저장성의 한 교회 십자가가 철거당하고 있다. (Telegraph)〉



가정교회는 ‘법인(法人)’의 조건을 구비하기가 어려우며, 설령 구비한다 해도 현금 정부의 허가를 얻기는 어려울 것이다. (新)종교사무조례가 주는 어려움 중에서 집회 장소에 관한 항목은 가정교회들이 넘어야 할 큰 산이다. 이 조항과 관련한 법적책임은 제 8장(법률책임) 제 71조에 명시하고 있다.

제 71조: 종교 활동을 제공하는 조건이 위법일 경우 종교사무부문은 경고하고, 합법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취득한 재물에 대해서는 몰수 한다. 상황이 심각할 경우 2만 위엔 이상 20만 위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법인 주택, 건축물은 계획, 건설 등 부문에서 법에 의거 처리한다. 치안 관리 위법 행위는 법에 의해 처벌한다.

제 71조에 따르면 종교 활동장소를 제공하는 경우 그것이 임대일 경우라도 임대주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규정을 만듦으로 정부에 등록하지 않거나, 삼자교회에 속하지 않은 가정교회들의 모임장소를 찾는 일이 더욱 어려울 것이다.

## 제 6장: 종교 활동

제 41조: 불법(非法) 종교단체, 불법 종교학교, 불법 종교 활동장소(등록되지 않은 가정교회와 그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음)에서는 종교교육과 훈련을 할 수 없으며, 공민으로 하여금 해외에서 종교 방면의 교육, 회의, 활동을 할 수 없다.

정부로부터 허가 받지 않은 어떤 종교 기관도 종교교육을 할 수 없으며, 심지어 해외로 출국하여 유학하거나 교육, 훈련을 받는 것조차도 규제하고 있어서 중국의 가정교회들이 지도자를 양성하거나 훈련하는 일이 더욱 어려워졌다. 필자는 실제로 중국 공안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해외 유학 중인 신학생이 중국으로 귀국한 경우를 목격한 바 있다. 해외에서의 활동이나 학업조차도 통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이다. 위의 조항과 관련하여 법적인 책임을 제 8장(법률책임) 제70조에 명시하고 있다.

제 70조: 공민이 임의로 출국하여 해외에서 종교 관련의 훈련, 회의, 성지순례 등 활동이 있거나, 혹은 임의로 종교 교육 훈련을 개설한 경우에 종교사무부문에서 활동을 정지시키거나 2만 위엔 이상 20만 위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6장에서는 매우 특별한 조항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제 47조와 제 48조이다. 현대사회의 특징이며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자유롭게 활용하며 보편적인 커뮤니케이션의 도구이며 활동인 SNS 활동도 이 조례를 통하여 통제하고, 단속할 법조항을 신설함으로 국민들의 통신활동 자체를 국가가 통제하겠다고 공포하는 것으로 보인다.

제 47조: SNS로 종교관련 메시지(소식)을 제공할 경우, 성(省)급 이상 심의를 거쳐 동의를 얻은 후, 국가 SNS 관리 규정에 따라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 48조: SNS를 통해 종교관련 메시지(소식)을 제공하는 경우 그 내용은 관련 법률, 법규, 규장과 종교 사무 관리의 관련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SNS를 통해 전할 종교관련 메시지(소식)은 본 조례 제45조 제2항<sup>3</sup>의 규정을 위반하지 않아야 한다.



〈중국의 종교 활동 단속은 오프라인을 넘어 온라인까지 확장되고 있다〉

위의 조항과 관련하여 법적인 책임을 제 8장(법률책임) 제68조에 명시하고 있다.

제 68조: 종교 내용의 출판물 혹은 SNS를 통한 종교 내용 전달의 경우 본 조례 제45조 제2항의금지 내용을 한 경우, 관련 부문에서 해당 기관이나 인원을 의법하여 행정처벌을 한다. 범죄 혐의가 드러나면 형사 처벌한다. 임의로 SNS에서 종교 내용을 전달하거나 허락된 내용을 초과하였으면 관련 부문에서 법률과 법규에 따라 처리한다.

## 제 8장: 법률책임

제 73조: (2) 해외 세력의 지배를 받아, 임의로 해외 종교 단체 혹은 기구가 위임한 교직을 맡은 경우, 기타 종교의 독립, 자주, 자반(운영) 원칙을 위반했을 경우  
(4) 허락을 받지 않은 종교 활동 장소 외에서 종교 활동을 주최하거나 조직할 경우

제 73조의 (2), (4)의 조항은 허가되지 않은 교회, 즉 가정교회의 모든 신앙 활동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3 제 45조 2항: 다른 종교와 화목을 헤치거나, 같은 종교 안에서 내부적인 화목을 헤치지 않아야 한다.

제지하는 것으로 정상적인 예배, 기도회와 조직과 장소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 아울러서 해외의 교회나 선교단체와의 관계를 맺거나 직책을 맡는 것을 법으로 통제하고자 하는 중국 공산당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볼 수 있다.

### III. (新)종교사무조례에 대한 관점

(新)종교사무조례를 보는 몇 가지 관점이 필요하다. (新)신종교조례에 대한 일방적이고 편협된 생각보다는 공산당 정권 하에서 공포되고 시행되는 종교관련 조례에 대한 종합적이고 적극적인 이해가 필요하고, 이를 근거로 대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첫째는 중국정부의 통제와 관리, 그리고 처벌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종교부문의 전통적인 통제방식인 통전부(統戰部)뿐만 아니라 일선 행정기관에게도 그 권한을 주었으며, 중국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의 중국인들의 종교관련 활동을 통제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오프라인(off-line)뿐만 아니라 온라인(on-line), 웹(web) 심지어 SNS 활동까지를 포함한 총체적이고 전방위적인 통제와 처벌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는 종교 활동장소를 불법과 합법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합법적인 활동장소를 갖는데 필수 요건이 법인등록을 하는 것이다. 즉 종교단체의 법인화 시도의 관점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가정교회는 종교법인으로 등록할 여건을 충족치 못하게 되고, 법인 등록을 하지 못함으로 불법적인 단체, 불법적인 활동이 되는 것이다. 셋째는 중국 공산당은 종교와의 관계설정에 있어서 철저하게 ‘공산당의 종교 지배형’ 구조를 기본으로 한다. 즉, 공산당에게 있어 종교는 국가의 통일전선 사업의 일환으로 보는 관점이다. 따라서 모든 종교는 국가의 정치체제에 적극적 적응과 수용, 학습해야 하며, 모든 종교 업무는 공산당의 주도 하에 사회주의 가치관에 따라 하도록 하는 것이다. 넷째는 기독교의 중국화 작업으로 보는 관점이다. 공산당은 교회가 사회의 하부 구조라는 관점으로 교회는 사회체제, 법치관리, 사회조직 등에 적응하도록 하여, 사회가 기독교에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독교가 중국사회에 동화되도록 한다. 기독교 안에 더 많은 중국 전통과 문화와 사상을 포함하고자 하는 것이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사회주의 가치관에 기독교를 적응시키려는 것인데, 성경조차도 중국화 하려는 시도가 있다는 것이다.

### IV. (新)종교사무조례 시행에 따른 가정교회의 어려움

(新)종교사무조례가 시행되기 시작하면서 중국 여러 지역에서는 공권력에 의하여 교회와 성도와

교회 목회자들이 시련과 환란을 당하고 있다. 그 사례들은 지역적으로 다양하고, 사건, 형태별로도 다양하다. 몇 가지 사례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정부 관리들이 집집마다 들이닥쳐 가정교회 운영 흔적이 있는지, 가족 구성원들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성경구절이 적힌 족자나 기독교 관련 그림, 십자가를 소유하는 것도 금지되었습니다. 관리들이 어떤 여성이 문 양쪽에 걸어놓았던, 성경 구절이 적힌 족자에 빨간 페인트를 칠해버렸다.

이 내용은 국민일보 2018년 2월 9일자에 실린 내용으로 중국 허남(河南)성 시화(西華)현의 한 마을에 사는 팡(彭)이라는 여성이 보낸 기도편지의 내용이다.

비단 이 교회만이 아니다. 한국이나 해외 언론에 보도된 자료들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공권력을 동원하여 교회를 폭파하거나 중장비를 동원하여 부수는 사건들이 몇 건 있다. 예배 중에 교회에 들이닥친 공안들이 설교자를 체포하고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을 조사하고 혼방한 일도 있다.



〈중국의 기독교 탄압을 묘사한 삽화 (한국 성결 신문 디지털)〉

북경의 잘 알려진 몇몇 도시가정교회는 공안에 의해 예배당이 봉쇄당하였고, 성도들은 각자의 가정이나 처소에서 소그룹으로 분산하여 모인다는 소식은 낯선 소식이 아니다. 마치 문화 대혁명 시절의 홍위병들에 의해 자행되던 행동과 유사하다.

한국인 선교사들이 주축이 되어 왕성하게 진행되던 중국 내에서의 신학교나 목회자 훈련사역 등은 중국교회의 요청으로 진행할 수 없거나, 선교사들의 요청으로 당분간 멈춘 상태이다. 뿐만 아니라 추방 형태의 비자발적 귀국도 점점 증가하고 있다.



SNS를 통하여 오고 간 내용들이 노출되어 공안의 호출을 받고 조사를 당한 경우가 있고, 한국에 신앙 훈련 차 왔던 성도들의 위챗(중국에서 주로 사용하는 메신저 어플)을 통한 위치를 추적당한 일, 중국공항에서 위치추적 어플을 깔고 출국해야 했던 일, 한국 유학 중 공안으로 직접 전화를 받고 어느 교회를 다니는지를 질문 당한 일 등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의 활동에도 손길이 미치고 있는 여러 상황들을 볼 수 있다.

(新)종교사무조례의 시행에 따른 여파는 비단 중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미치고 있다. 그 실례로 중국이 아닌 제 3국에서 진행되던 중국교회의 선교대회도 멈춰지고 있다. 대회를 준비하고 진행해야 할 주요 인물들이 출국을 할 수 없고, 대회에 참석해야 할 가정교회 성도들의 활동이 여의치 않기 때문이다. 선교중국의 구체화를 위해 MC 0~MC 4<sup>4</sup>로 나누어 전략을 도출하던 전략회의 모임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편 모신학대학원에서 가르치고 있던 중국인 학생 중 두 명은 금년 3월초 중국 공안국의 소환명령으로 본국으로 돌아갔다. 외국에서 신학을 공부해서 안 된다는 이유로 소환 된 것이다. 학생의 집으로 공안국에서 연락이 왔고, 학교와 전공을 물었다. 그리고 해외에서 유학 중인 학생에게 연락하여 2 주 만에 귀국하지 않으면 처벌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서둘러 귀국하였다.

우리 단체와 동역하고 있는 중국내 모 단체는 이슬람권 선교를 위해 파키스탄을 선정하고 진행 중이었다. 또 다른 지역의 단체는 힌두권 선교를 위해 인도에 선교사를 파송하며 단기선교 팀을 보내는 등의 사역을 하고 있었다. 비교적 중소도시에 속한 지역교회들 연합모임에서 공산권 선교를 위해 인접 지역인 북한 사역을 위해 지도자들이 몇 번씩 북한을 다녀오는 등의 열심을 내고 있었다.

그러나 (新)종교사무조례의 시행으로 잠시 선교사역을 멈추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 물론 아예 포기하거나 중단한 것은 아니다. 잠시 숨을 고르며 다음 행보를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중국내 한인교회들도 요즈음 여러 가지 제약을 받고 있다. 소수이기는 하지만 폐쇄 명령을 받기도 하고, 예배시간에 공안이 들이닥쳐 예배를 중단하게하고 담임목사를 얼마간 구류 아닌 구류를 한

4 중국교회가 감당해야 할 선교 영역을 Mission China의 머리글자를 따서 MC0(전략, 이론분야), MC1(중국 안의 선교 영역-캠퍼스, 주일학교 등), MC2(중국 안의 소수민족), MC3(해외 거주 중국인), MC4(타문화권 선교 영역)로 구체화한 것.


경우도 있다. 또 임대기간 만료가 되었으나 연장해주지 않고, 다른 장소를 임대할 수 없어서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어떤 교회는 중국정부의 지시로 지역 삼자교회로 예배장소를 옮기기도 하였다.

위에서 간략히 살펴본 것처럼 (新)종교사무조례는 지역불문, 형태불문, 온-오프라인 불문으로, 대상불문, 국내외 불문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례들이 많다.

### 글을 맺으며

(新)종교사무조례는 중국 가정교회가 새롭게 만나는 핍박이나 환란은 아니다. 이미 1949년 이후 지금까지 온 몸으로 핍박을 받으며 살아왔고, 문화대혁명 같은 살벌한 시기도 목숨 걸고 신앙을 지켜온 중국교회이다. 잠시 위축되거나 정황을 파악하느라 멈칫거릴 수는 있을 것이다. 그들은 공권력에 의해 무너져 버리는 예배당 건물을 보며 절망하지 않고 도리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더 생각하는 지도자들이다. 분명한 것은 중국교회가 중국 정부를 두려워하거나 공포에 떨고 있는 것은 아니라다. 오히려 자신들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新)종교사무조례의 시행이 주는 어려움과 번거로움, 환란과 핍박을 동반한 강력한 규제와 통제와 감독을 잘 감당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 승리하기를 기도한다.

중국교회는 이미 많은 환란을 경험하였고, 세계가 놀란 부흥을 경험하고 지금도 부흥 가운데 있으며, 세계 도처에 화교들이 분포되어 있으며, 중국 국가 경제가 발전하였고, 도시 가정교회가 발흥하고 있어서 세계선교를 감당할 많은 여건들을 구비하고 있다. 중국교회가 이 어려운 시기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지혜를 구하며, 세계선교의 비전을 보편적으로 공유하기를 기도한다. 

---

\* 이글에는 참고문헌에 표기된 필자의 글이 포함되어 있음을 밝힙니다.

#### 〈참고문헌〉

김종구, “신종교사무조례”, 「위드차이나」(2018년 봄호)

\_\_\_\_\_, “신종교사무조례와 중국기독교”, 「2018 NCOWE VII」자료집

함태경, “신종교사무조례 시행과 중국교회, 그리고 우리는?”, 「전방개척선교」(2018년 5-6월호)

## 러시아 연해주에서의 북한 선교 가능성과 한계점

노사명 선교사

필자는 2002년 한일월드컵이 끝난 후에 빨간 티셔츠를 가지고서 연해주 단기선교를 왔다. 우리 팀을 이끌었던 현지 선생님은 과거에 중국 동북삼성 지역에서 탈북자 사역을 하시다가 중국 정부로부터 15년 동안 추방을 당하셨다. 이 곳 연해주에서 교회를 개척하신다는 소식을 접한 후에 러시아 선교사로 결단하고, 함께 헌신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2003년부터 협력 사역을 하게 되었다.

당시에는 남과 북의 정상들이 만나서 평화 분위기가 아주 좋았기에 선배 선교사님께서는 향후 10년 후에는 반드시 통일이 될 것이라는 말을 하셨다. 정말로 일말의 의심 없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서 북한을 향해서 교회와 센터를 세워가는 사역을 오랫동안 함께 감당해 왔다.

2003년에 사회복지센터를 건축하는데 북한 노동자들 6명이 추운 겨울인 2월 달부터 일을 하는 것을 보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영하 20도가 오르내리는 추운 겨울에 난방도 없는 곳에서 숙식을 해결하면서 일을 하는 모습은 한민족으로서 느끼는 가슴 아픈 현실이었다. 그 누구도

감히 아무런 접촉도 할 수 없었고, 일만 계속해서 하는 로봇처럼 보였다. 때로는 북한을 탈북해 온 사람도 센터에서 만나기도 하고, 함께 식사하는 시간도 있었다.

필자는 1998년 중국 도문을 방문했을 때에 북한 탈북자들을 돕는 사역자들의 생생한 현장 이야기와 북한에서 두만강을 건너는 과정에서 친한 친구가 총에 맞아 죽은 것을 경험한 형제의 이야기도 들었다. 눈물을 흘리면서 말을 어렵게 이어가던 김 형제의 모습을 지금까지도 잊을 수가 없다.

올해 들어서는 평창 동계 올림픽에서의 남과 북의 단일팀이 경기를 나가고, 남과 북의 정상이 만났으며, 북미회담을 통하여 완전한 비핵화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과정이지만, 대부분의 연해주 선교사님들이 접촉하면서 돕고 있는 북한 노동자들은 북한으로 되돌아갔다. 왜냐하면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환율 변화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이전보다 갑절의 돈을 벌어야만 하기 때문이었다. 계속 머무른다면 할당된 돈도 벌지 못하고 계속 빚더미에 올라앉게 되는 악순환을 이겨 내지 못하기 때문이라.



〈2014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일부였던 크림 자치공화국을 병합한데 대한 미국과 EU의 제재 및 유가 하락으로 인해 러시아 루블화는 큰 폭으로 폭락했다. 사진은 크림 합병 4주년 행사에 모인 인파의 모습〉

중국에서의 단기선교 경험으로부터 러시아 연해주에서의 사역까지의 20년이라는 세월동안 선교지에서 북한을 연구하고, 북한의 개방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사역을 감당해 왔던 감사하고 고마운 사역이었다.

북한 사역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필자가 연해주 선교 현장에서 경험한 일을 토대로 북한 선교의 가능성과 한계점에 관해 피력해 보고자 한다.

## 1. 북한 선교의 가능성

연해주에는 많은 북한 노동자들이 외화벌이를 위해 나와 있다. 북한 노동자들이 나와 있다는 것은 그들을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 하심이 있다는 가능성 또한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2012년 APEC을 준비하기 위해서 연해주에 들어온 10,000여 명의 북한 노동자들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많은 사역자들에 의해서 복음을 듣고 변화를 받는 귀한 기회의 시간이기도 했다.

필자는 여러 선배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지켜

보면서 북한 노동자를 직접 만나서 복음을 전할 기회와 양육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오길 기도해 왔다. 2010년부터 시작된 소그룹의 북한 선교를 위한 기도모임을 통하여 북한에 대한 많은 정보를 나누고, 연해주에서 직접 사역에 옮길 수 있는 전략을 짜고, 정해진 대상자들을 구체적으로 도움 방법들을 진행해 나갔다. 세 명의 선교사들은 각자 하고 있는 북한 노동자 사역들을 모임 때마다 나누었고, 기도 제목에 따라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를 드렸다.

필자가 직접 준비하고 경험하면서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가능성 있었던 사역들을 나누면 다음과 같다.

1) 현지의 특정신문을 아내와 함께 한국어로 번역하여 신문을 만들어 북한 노동자들에게 정보를 나누어 주는 사역을 도왔다. 현지의 고려인 할아버지 할머니 노인 성도들이 주축이 되어서 이러한 일을 오랫동안 진행해 왔다.

2) 우수리스크 중국 시장과 일하는 현장에 김밥과 김치를 싸서 전달하는 사역을 했다. 필자가 직접 나설 수 없는 일이기에 아내를 통하여 전달할 때의 일은 지금도 선명하게 떠오른다.

3) 몇몇의 북한 선교 사역자들과 “안드레 작전” 처럼 노동 현장에 일을 부탁하여 만들고, 노동자가 일하는 동안에 필자는 옆에서 복음 제시를 하여 예수님을 영접하길 권면하는 사역을 진행했다. 다른 선교사님이 비자 문제로 국내에 들어가 계시는 동안 노동자를 성경 말씀으로 양육하는 일을 하였다. 이 형제는 나중에 한국으로 들어가서





《우수리스크 인근 고려인 정착촌 '우정마을' (조선일보)》

여권을 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

4) 건축 관련 일에 두 사람의 노동자들을 추천 받아서 오라고 하여 두 달 동안 숙식을 같이 하면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복음을 증거 하면서, 함께 교제하고 한국 영화와 드라마를 시청하는 시간들을 가졌다. 필자의 아내가 러시아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5) 두 사람의 노동자를 관리하는 직장 장의 직책을 가진 모 형제를 만나서 수년 동안 교제를 하였고, 많은 북한 선교 단체와 모임이 있을 때에 비공식적인 모임에 동참하였으며, 심각한 질병으로 인한 어려운 시기에 권면하여 예수님을 영접하였으며, 2014년 부활절 감사예배 때에 세례를 받았고,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양육을 받는 등 참으로 놀라운 일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셨다. 이 형제를 통하여 북한 내로 수많은 선교물품들을 들여보내는 사역을 감사하게 감당할 수 있었다.

6) 북한 선교 사역을 중국에 이어서 연해주에서 감당하시는 장로님과 함께 북한으로 들어가기 전의 형제들에게 세례식을 거행하고, 함께

성찬식을 나누는 영광을 누렸다. 이 형제들은 북한에서도 지속적으로 사도신경과 주기도문, 그리고 십계명을 기억하고서 신앙생활을 할 것으로 믿고 있다.

7) 이전까지 복음을 영접하고 교제를 나누었던 수 명의 형제들은 북한의 핵실험이 한창일 때에 북한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여러 기회를 통해 계속적으로 북한 노동자와의 접촉은 지속적으로 이루어 나가고 있다.

이처럼 그 동안의 북한 선교 사역을 통하여 많은 부분이나 많은 사람을 감당하지는 못하였으나 북한 노동자들이 있는 현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사역이었고, 앞으로도 가능한 사역이라고 확신한다.

## 2. 북한 선교의 한계점

러시아 선교사로 사역하고 있으면서 북한 선교를 감당한다는 것은 가능성보다는 오히려 한계점과 조심해야 할 점이 더 많다. 왜냐하면 종교비자로 종교 국에 등록을 한 상태에서 살아가기 때문이다. 자신의 비자 목적 이외의 활동을 하면 많은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또한 북한 노동자들을 접촉하더라도 5년이나 10년이 지난 사람은 경계심을 많이 무너뜨리지만, 현장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는 노동자들은 자신의 할 일도 바쁘기 때문에 접촉하는 일은 아주 어렵고 힘들다.

대부분의 북한 노동자들은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접촉하더라도 별도로 나와 있는 특별한 현장 외에는 함께 시간을 나눌만한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많이 있다.


북한 노동자들은 2년 취업 비자로 나와 있기 때문에 연장하기 전에는 노동 현장에서 일하는 것을 보장받기도 어려운 것도 한계점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북한 노동자들을 계속해서 접촉을 하려면 건축 현장의 지속적인 제공과 북한 노동자들에게 할당된 자금이 있기 때문에 선교사 개인이 충당하기에는 너무나도 막대한 재정지출에 오랫동안 지속할 수 없는 제한점도 있다. 북한 노동자들을 돕는다는 사역을 마음 놓고 국내에 보고를 하거나 후원을 부탁할 수 없는 북한 선교 사역자들의 특수한 상황도 한계점 중의 하나라고 생각된다. 항상 긴장된 상태에서 생활에 임해야 하고, 가족들과 자녀들의 안전을 생각해야 하는 것 또한 가장으로서 유의해야 할 점이다.

이상으로 필자가 러시아 연해주에서 지난 15년 동안 경험한 북한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사역한 북한 선교의 가능성과 한계점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2018년에 들어서 새로운 남과 북의 환경들이 이전과는 다르게 펼쳐져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주시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된다.

한 형제가 북한으로 들어가기 전에 고백한 말이 지금도 필자의 심금을 울린다. “한반도의 평화 통일은 정치나 경제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남과 북의 한민족이어야 하나가 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렇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요 14:6). 과거의 평양에 있었던 부흥운동이 오늘날에도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야겠다.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과 같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더 준비되고 훈련되길 소망한다(마 3:3). 국내와 해외 각 국의 환경만 바라본다면 낙심하고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심령이겠지만,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이 길을 달려간다면 어렵게만 보이는 북한 노동자들을 통한 북한 선교도 어렵지만은 않은 가능성들이 많이 있다.

필자는 언젠가는 북한 노동자로 나왔다가 예수님을 믿고 들어간 형제들과 만나는 꿈을 꾸고 있다. 함께 복음을 들고 열방을 향해 나갈 비전을 가지고 있다. 러시아 연해주에서의 북한 선교의 가능성과 한계점을 잘 극복하고 판단하면서 이 사역을 주님 오실 때까지 지속적으로 감당하길 소원하고 있다. 



〈러시아의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 (VOA)〉

## 해외 탈북민 사역

정베드로 목사 (북한정의연대)

최근 남북정상회담이 이어지고 남북간의 교류를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다. 그러나 통일이 되어서 남과 북의 사람들이 마음대로 원하는 곳을 갈수 있는 세상이 언제 올 것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때까지는 탈북동포의 탈북행렬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오늘도 탈북하는 북한동포들의 목숨건 도강이 이어지고 있다. 국경의 삼엄한 경비와 감시를 벗어난 것도 잠시뿐이다. 다시 어디론가 팔려가는 북한여성들이 있다. 자신의 몸이 성치 않는데도 팔려갈수 있으면 가겠다고 인신매매범을 따라 나서는 탈북여성들도 있다.

현재 중국에서 한국으로 오는 탈북동포들의 수는 많이 줄었다. 대신 탈북한지 10년이상 20년 가까이 된 중국에서 장기 체류하던 탈북민들이 한국으로 오고 있다. 중국에서의 신변의 불안과 자녀들의 교육과 장래 그리고 보장없는 중국에서의 생활을 접고 마침내 대한민국으로 들어오는 것이다. 현재 중국에 남아 있는 탈북한 북한동포들은 약 5만에서 10만명 내외로 추산되고 있다. 그 외에 러시아 별목장을 이탈한 북한동포들이 불법체류자의 신분으로 숨어 사는 분들도 있다. 이전에는 몽고의 사막을 경유하여

탈출하는 북한동포들이 있으나 지금은 몽골의 루트나 동남아의 캄보디아로 경유해서 오는 탈북자는 많지 않다. 그래서 해외 탈북자 사역하면 중국, 러시아, 동남아시아에 체류중인 분들을 위한 사역이 주류이다. 그러나 합당한 난민지위나 국적을 취득하여 그나마 안정된 국가에서 정착하는 탈북민들도 있다. 예를 들면 미국, 영국, 일본, 캐나다, 호주, 독일 등 해외에서 거주하는 탈북민들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탈북자의 주요 경유지인 중국을 중심으로 한 해외 탈북민에 대해서 논하고자 한다.



〈중국과 몽골 사이의 국경을 넘는 탈북자 소년이 초원을 향해 달리고 있다. (영화 '크로싱'의 한 장면)〉

북한 당국은 2010년을 전후로 하여 국경지대의 보초를 늘리고 두만강 지역에 철조망과 함정을

설치하고 또 감시카메라를 설치하여 두만강 일대로 탈북 하는 것을 막고 있다. 이 시기를 전후를 하여 탈북루트는 많이 막혔고 대부분 압록강 상류지역인 강폭이 좁은 지역의 경비가 덜한 지역에서 이어지고 있다. 해외탈북민 사역을 통한 북한선교는 바로 이 중국의 뒷문과 같은 선교현장에서부터 시작된다. 그 선교의 대상은 탈북자들의 80%이상인 북한여성, 탈북남성 그리고 중국인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아동들이다. 탈북민 사역은 단순히 복음을 전한 것 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수 있도록 인도하는 길이다. 여기에는 탈북동포들이 강제북송되지 않게 하고 난민으로서 자신이 원하는 나라로 갈수 있도록 가이드하는 일도 매우 중요한 사역이다. 또한 중국인들과의 관계에서 합당한 노동의 댓가를 받도록 하고 부당한 대우에 대해서 적절한 행동을 취하게 하는 것이지만 최상의 방법은 중국인들의 부당한 감시와 공간에 제보하는 행위로부터 보호받도록 하는 일이다.



탈북남성들의 경우에 농업이나 광업소에서 제대로 품삯을 받지 못하고 산림지역에서도 벌목업에 투입되어 끊임없는 노동 착취를 당하고 있다. 탈북여성들은 중국내지의 현대판 성매매로 팔려가거나 중국남성들에게 인신매매로 팔려가는 경우가 허다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 탈북민 사역에서 탈북민들에게 복음을 접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희망을 갖고 살도록 노력해야 함이 절실하다. 그래서 중국을 비롯한 해외 체류 탈북동포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예수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회복되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 목적이 되어야 한다.

최근 탈북자 구출의 수가 감소하고 있는데 이런 매일수락 구출의 목적을 탈북자 영육구출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있게 대두되고 있다. 왜냐하면 심령이 가난하고 갈급한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을 잘 영접하고, 한국 입국후에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신앙적 정착을 잘 이뤄가기 때문이라는 통계가 있다. 국내 신앙정착 70프로 이상의 탈북자들이 해외에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 사람이고, 탈북민 신학생이나 목회자들의 90%이상이 해외에서 복음을 접한 경험이 있다는 사역보고가 있다.

그러나 무조건 중국에 있는 탈북동포들을 한국이나 해외로 기획탈북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못하다. 그래서 해외 탈북민 사역은 인도적으로나 복음적인 최상은 북한 동포들이 복음을 듣고 북한과 중국에 있는 가정을 지키도록 양육을 하는 것이다. 비록 중국에 팔려갔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았다면 그것은 가정이기 때문이다. 왜 한국에 입국한 탈북여성들의 자살률이 한국 여성들보다 자살률이 높은가? 해외에서부터 올바른 가치관과 복음관을 접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제대로 된 북한선교를 하려면 탈북민의 영육구원을 위해서 복음적으로 잘 훈련된 선교사가정이 중국과 해외 체류지로 직접 가서 탈북민들에게 복음양육을 해야 한다. 또한 교회가 물질만을 가지고 중국 현지에 가서 위험해 노출되어 있는 탈북민들을 모아다가 일정한 금액을 지불하면서 사진찍고


양육하고 선교했다고 이벤트하는 일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비록 위험하더라도 중국과 제3국에서 복음으로 탈북민을 양육하고 섬기는 일에 헌신자들이 많이 나올 필요가 있다. 다만 비인권적으로 무리한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양육현장에 탈북민들을 현장에 오래 머물도록 하거나 억지로 복음을 강요하는 방법도 지양해야 할 것이다.

지금 북한복음화와 북한선교의 관건은 복음으로 바로선 탈북민 사역자들과 헌신자들을 세우는 일이다. 북한의 교회가 건전하게 재건되려면 북한에 가서 교회를 세울 북한출신의 사역자들을 무시하고서는 안 될 것이 너무나 명백하다. 그런 측면에서 북한의 변화와 복음통일을 이루는데 있어서 해외 탈북민 사역은 현장성과 실효성이 매우 높은 사역이다. 중국의 탈북민들 중에는 복음을 듣고 구지 한국으로 입국하기를 거절하고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는 분들도 있다. 그리고 탈북이 아닌 공식적인 중국방문으로 넘어 온 북한주민들이 지혜롭게 사역자들과 교제하고 양육을 받아 북한으로 돌아가기도 한다. 이러한 해외 탈북민 사역은 북한의 체제를 위협하거나 당사자를 위험에 빠뜨린다고 보는 견해도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복음의 겨자씨를 심는 귀한 사역이 된다. 현재 중국에서 양육을 받고 복음 안에서 정착하며 살고 있는 탈북민 중에는 북한으로 여러 가지 물품을 전하고 선교금을 보내면서 복음을 전하는 분들도 있다. 다양한 방법과 기술로 복음을 담은 상품들이 북한으로 들어가고 있다. 최근 북한주민

들이 핸드폰을 사용하는 비율이 매우 높고 확산되고 있고 외부정부를 빨리 접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가족들에게 중국 현지에서 보내는 돈과 물품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해외 탈북민 사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중국교회이다. 중국 선교를 통한 북한복음화에 관해서 전략적으로 연구하고 적극적인 계발이 필요한 시점이다. 해외 탈북민 사역에 중국교회와 성도들을 어떻게 북한선교로 이을 것인지를 노력해야 하고 기도가 필요하다. 해외 탈북민들을 위한 복음 사역에서 중국의 한족교회와 조선족교회가 잘 할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인내심을 가지고 지원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중국교회가 중국 정부의 탈북난민과 탈북동포들을 강제북송하여 박해받도록 방치하고 무관심하는데 대해서 스스로 자각하고 강도만난 자의 참 이웃이 누구인지를 알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중국교회가 중국공산당의 반기독교정책에 대해서 위축되지 않고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감화로 북한을 품고 탈북민을 품게하는 기도를 지속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

중국과 제3국의 탈북민 사역에서는 탈북민 한 사람, 한 가정을 귀하게 생각하고 현장에서 이분들이 최상의 안전한 상황에 있도록 노력하는 전문적인 사역자가 요청된다. 이러한 전문적인 사역자들이 중국과 해외현장에 나가서 전문인으로서의 탈북민 선교, 탈북민을 통한 북한선교, 중국교회를 통한 북한선교 등 다양한 선교전략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역동적인 변화의 기류 속에서 해외 탈북민 사역이 현장을 중심으로 한 거시적이고 통합적인 안목을 가지고 실행해 나가는 전문적인 사역으로 거듭나기를 기도한다. 나아가 한국교회가 해외 탈북민 사역을 통해서 복음적 통일을 이루기 위한 북한선교의 뒷문의 사명을 과감하고 신실하게 잘 감당해 나가기를 소망한다. 그러나 바라기는 해외에서 체류하다가 체포되어 강제 북송되어 박해받는 탈북민들이 더 이상 많이 나오지 않도록 남과 북의 장벽이 속히 무너지고 꿈꾸는 것 같은 통일이 도래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 나의 출애굽기 (7)

드보라

탈출에 실패하고 집결소로 끌려갈 때는 그 길이 죽음의 길인줄로만 알았다.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예비하심이 있었을줄 누가 알았으랴.

집결소에 가서도 강제노동은 피할 수 없었다. 집결소에 도착했을 당시는 여름이었다. 우리는 주로김매기를 하러 다녔다. 인솔하는 간부를 따라 농기구도 없이 그냥 맨 몸으로 줄 세워서 언덕을 올라가보니 넓은 콩밭에 있었다. 거기서 모두 엎으려 일하라고 지시받았다. 콩을 돌아주고 잡초도 뽑는 작업이었다. 도구가 없으니 맨손으로 김을 매고 농사일을 하니 손이 안다칠 수가 없었다. 비료도 없어 안그래도 척박한 땅이 딱딱하게 굳어 흡사 돌덩어리 같았고, 그 땅을 손으로 갈아 엎으려니 손 끝에 피가 나고 손바닥이 다 헐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콩밭은 간부 가족의 밭이었다.

새벽에 식전 작업도 있었다. 간부는 집결소 화장실에 인분 말린 것을 가지고 매고 올라가라고 지시했다. 자루에 냄새가 정말 지독했다. 코를

찌르는 냄새를 애써 외면하며 길을 올라 가니 무와 배추를 심기 위해 밭을 갈아놓은 곳이 있었다. 그 곳에 장갑도 없이 맨 손으로 인분 말린 것을 짭 뿌리고 그 위에 씨를 뿌렸다. 식전 작업으로는 최악이었다. 제대로 손 씻을 곳도 없으니 그 구린내 나는 손으로 밥을 먹어야 했다. 간수들의 취급도 그렇고 실제로도 그렇고 인간다움이 전혀 없는 완전한 짐승의 생활이었다.



〈개성시 해선흥동농장에서 근로자들이 거름을 실어내고 있다. (RFA)〉

숙소 배치가 되었다. 우리 숙소로 배정된 곳을 보니 2평도 안될 것 같은 곳에 30명이 넘는

인원이 배치되었다. 낮에야 모두 일을 나가니까 그렇지만 밤에 잠을 청하려고 하면 그 많은 사람이 누울 만한 공간은 도저히 나올 수가 없었다. 별 수 없이 서로 다리를 접고 기대며 눕는데 이와 빈대가 득실거렸다.

생활 환경이 너무 열악하다 보니 감방 안은 다들 불평 불만이 가득했다. 그런데 그 중에 특이한 사람이 있었다. 한 60대 초반쯤 되었을까 싶은 할머니였다. 이 할머니는 눈빛이 초롱초롱하고 말하는 것이 참 긍정적이었다. 이곳에 뭘 긍정적일만한 것이 있는지 신기하다 싶어서 왜 그런가 하고 물어보니 할머니가 자기를 공주라고 했다. 특이한 것을 넘어서 미친 것 아닌가 싶은 사람이 다 있다. 공주 타령에 나는 괜시리 어이가 없고 기분이 나빠서 “나도 다 젊을 때는 잘 대우받았다”고 하면서 쪼글쪼글한 할머니가 미쳤다고 욕하고 지나쳤다.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자기가 공주라고 하니 혹시 이 사람이 부자집 딸인가 하고 생각했다.

미쳤다고 생각했던 그 할머니는 그 이후에도 계속 나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어떻게 살던 사람이길래 이 짐승 같은 생활 속에서도 이렇게 평온한 모습인지 궁금하기도 하고 괜히 시기가 났다. 게다가 할머니는 계속 자기는 곧 석방되서 나간다고 말했다. 아무래도 무슨 부자 친척이라도 있는 것 같다. 신기하기도 하고 호기심도 생기고 좋은 관계로 지낸다고 손해 볼 것은 없으니 할머니와 친하게 지냈다.

친해지니 자연스럽게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이 할매는 중국에서 10년 만에 북송당했다. 자녀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15년 전 즈음에 북에서 차 사고로 며느리와 함께 죽었고 5살배기 손자만 남겼다고 했다. 할머니 혼자서 도저히 5살배기 손자의 생계까지 책임 지며 살수 없어서 꽃제비 짓을 하며 겨우 먹고 살면서 먹을 것을 찾아 떠돌다 보니 강변까지 흘러흘러 오게 되었었다. 그리고 밤에 불빛이 켜져 있는 곳을 보고 거기 가면 밥이라도 얻어먹을 수 있을까 싶어서 손자와 함께 가서 문을 두드리니 집 주인이 웬일로 반갑게 맞아 주었다. 그 사람들이 우리를 가만히 보며 “물 건너 오셨지요? 잠깐만 기다리소” 하고는 곧 이어 밥을 주는데 너무 굶주린 터라 정신없이 먹었다고 한다. 그런데 밥을 한참 먹고는 정신을 차리고 방을 둘러보니 북한에는 어느집에나 있는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가 안보였다. ‘아 이 동네 이상하다...’하는 생각에 그 집주인에게 “이 마을 이름 뭐예요?” 하고 물었더니 아뿔싸, 중국이었다. 할머니는 자기도 모르게 강을 건 너고 말았던 것이다.

할머니는 큰일났다는 생각에 손자를 데리고 바로 집을 빠져나왔었다. 그렇지만 컴컴한 밤중에 어디가 강인지 어디가 길인지도 잘 모르겠고 일단 숨어야 겠다는 생각에 언덕에 올라 숲에 몸을 숨겼다. 기온이 떨어지고 날씨가 추워지니 손자가 부들부들 떠는데 할머니 마음에 밥 얻어먹은 집에 하룻밤만 신세를 질 것을 그랬는가 하며 후회가 되었다. 그러다가 옷이라도 빌려야겠다고 하고 용기를 내어 언덕을 내려왔는데 어떤 차가

지나가다가 할머니를 보고 창문을 내리고 한국말로 어디서 오셨냐고 물었다. 너무 놀란 할머니는 대답도 못하고 있는데 그 차에 있던 사람이 마을 가지 말고 숨어서 5분만 기다리면 다시 데리러 오겠다고 했다. 그 말대로 숨어 있었더니 과연 차가 다시 와서 할머니와 손자를 태워갔다. 그 차는 두 사람을 멋있는 집에 데리고 갔고 자기는 공주의 삶을 살았다고 한다.

할머니 이야기를 들으니 너무 부러웠다. 이 할머니는 중국에서 탈북해서 공주로 살았는데 나는 왜 재수 없이 팔려 다니고 시골 촌동네로만 떠돌았는가? 화가 나고 부럽기도 했다. 할머니는 그런 내 모습을 보면 자기가 시킨 대로 하면 나도 좋은 일이 많이 생길거라고 했다. 할머니와 내 모습을 비교하며 재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던 터라 어떤 비법이 있다는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 비법이 뭔가? 할머니가 가르쳐준 방법은 매우 간단했다. 짧은 문구를 외우는 것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지켜주세요.’

그리고 이어서 마음에 소원을 다 말하고 ‘예수님 이름을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 된다고 했다. 눈을 감고 해도 되고 눈 뜨고 해도 괜찮다고 했다. 그 당시 나는 하나님의 하자도 들어본 적이 없었고 중국에서도 워낙 촌동네 살다보니 교회를 가본 적이

없었던지라 이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도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다. 나중에 하나님을 믿게 되고 보니 할머니와 손자가 간 멋진 집은 교회였다. 그 교회에서 훈련 받으며 10년 동안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이제는 하나님의 딸로서 바로 ‘공주’의 신분으로 살게 되었다는 것을 나에게 설명해주었던 것이다. 어떻게 이런 분을 그 감옥에서 만났을까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신기하고 감사하기만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그냥 가르쳐준 기도문을 따라 열심히 소원을 빌었다.

“이 지긋지긋한 감옥에서 나오게 해주세요, 아무래도 이 집결소 인근에 사는 내 동생을 찾아야 나갈 수 있을 것 같으니 동생을 만나게 해주세요.”

내 바로 아래 남동생이 그 집결소가 있는 도시 인근에 살았다. 동생이 돈을 좀 쓰면 나도 빠져나올 수 있겠다 싶었다. 문제는 가족을 찾는 것도 돈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사실이다. 뇌물로

돈이나 담배를 찢어줘야 한번 찾아볼 수 있겠는데 내 주머니는 텅텅 비어있었다. 이래저래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막연하게 할머니 말만 믿고 반신반의 하면서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시간 될 때마다 중얼중얼 소원을 빌었다.

한편 집결소의 죄수들은





이전 저런 곳으로 노동을 가는데 개중에는 외화벌이 회사들도 가는 사람들도 있다. 외화벌이 회사는 죄수들에게 가장 인기 좋은 일터였다. 돈은 당연히 못 받지만 그래도 옥수수떡하고 국수하고 잘 챙겨줬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인기가 좋은 만큼 빠릿빠릿하게 일 잘하는 사람만 갈 수 있었다. 구류장에서부터 이미 몸상태가 안좋았던 나는 당연히 해당 사항이 없었다.

그런데 어느날 보니 외화벌이 작업장에 내 이름이 있었다. 이게 웬일인가 싶은 마음으로 작업장에 갔더니 건설현장이었다. 큰 벽돌을 등에 매고 올라가는데 안전장치도 전혀 없이 작업했다. 허약한 나에게 건설현장 일은 너무 힘들고 고되었다. 너무 힘이 없고 맥이 빠져 일하는 도중에 잠깐 쉬고 있는데 악질 감독이 나를 째려보았다. 나이도 어린 것이 죄수들을 들들 볶고 막말을 내뱉으며 일을 시키는 놈이다. 불뚱이 나에게 튀었는가 싶어 움츠려 있는데 그 놈 입에서 대뜸 “야 너는 여기 친척 없어?” 하는 질문이 나왔다. 다행히 그 놈 눈에도 내가 불쌍해 보였는가 보다.

“있습니다!”

그 간수는 내 대답에 혀를 끌끌 차면서 “친척이 있으면서 이 주제나 뭐하는 짓이냐 에휴...” 라고 말을 이었다. 그러면서 “친척은 어디사니?” 하고 물었다.

“○○○ 시입니다!”

“그래? 어느 사업장 누구인데?”

“○○○ 입니다!”

이렇게 나는 그 간수가 묻는 대로 내 동생의

이름을 가르쳐 주었다. 그리고 작업은 계속되고 점심시간 되었다. 밥으로 옥수수 떡이 나왔다. 듣던 대로 역시 이 외화벌이 사업장은 밥이 잘 나왔다. 그간 먹던 것에 비하면 너무 진수성찬이라 정신없이 먹고 오후 작업을 하려는데 그 악질 간부가 나를 찾았다.

“야, 그 친척 이름이 ○○○ 맞아?”

“네 맞습니다.”

간수는 내 대답을 듣더니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야 이 간나야, 니 친척 찾았다.” 라고 말했다.

그 말을 듣고 한동안 멍하니 있었다. 그 악질 간부가 내 동생을 찾아서 내 소식을 알려준 것이다. 탈출에 실패해서 집결소에 있으면서 다음에는 어디로 끌려갈 것인가 걱정하며 나는 죽었구나 하는 생각 뿐이었는데 이렇게 내 동생을 찾게 되다니... 아무리 생각해봐도 말도 안되는 일이 일어났다. 문득 ‘그 할머니 참 용하다’ 하고 생각했다. 할머니에게 보답을 하고 싶어서 저녁에 받은 옥수수 국수 면 절반을 봉다리에 싸서 할머니에게 줬다.

“야, 니 시킨데로 했더니 동생 찾았다. 하나님 인지 뭔지 참 용하다.”

할머니는 자기 일처럼 너무 기뻐하면서 “잘됐다 잘됐다” 하고 좋아했다.

나는 이렇게 동생을 찾았다. 그렇지만 나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할머니는 복에 남은 가족도 없으니 나날 희망이 없어 보였다. 그런데 그 할머니는 자기가 빨리 나갈 것이라고 자주 이야기했다. 가족도 없는 사람이 어찌 나간다고 하는지 할머니가 가르쳐준 문구로 용하게 효과를

본 나지만 그럼에도 할머니의 석방은 도저히 불가능해 보였다. 그나마 할머니는 같이 복송된 손자 덕분에 집결소 생활은 크게 곤란하지는 않았다. 그 당시 손자의 나이가 10대 중반이었는데, 이 손자가 씩씩하게 잘 행동을 해서 집결소 간부들의 이쁨을 받았다. 덕분에 할머니도 일도 보내지 않았고 할머니도 열악한 중에서도나마 나름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었다. 안그래도 나이도 많은데 그나마 괴롭힘 받지 않아서 다행이다 싶었다. 그런데 이 할머니와 손자에게 전혀 예상하지 못할 일이 일어났다.



〈김장배추를 싣고 달리는 평양의 한 트럭의 모습. 겨울이 길고 추운 북한 날씨 때문에 김장은 반년치 식량을 준비하는 큰 일이다.〉

여름이 끝나가고 날씨가 선선해지는 김장철이 다가왔다. 집결소에서는 대량으로 김장을 담근다. 김장을 담그기 위해서는 당연히 배추나 무, 소금 등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북한에는 소금이 귀하고 가격도 상당히 나간다. 그런데 하루는 집결소 간부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났다. 이 할머니 이름으로 중국에서 집결소로 자그마치 2톤이나 되는 소금을 선물한 것이다. 덕분에 이 할머니와 손자는 모범 출소가 됐다.

가족도 없는 할머니의 안위를 걱정했던 나로서는

정말 놀랄 수밖에 없는 일이었다. 할머니 말대로 정말 나보다도 먼저 집결소에서 나가게 된 것이다. 다만 할머니가 갑작스럽게 출소하다 보니 할머니의 이름이나 살았던 지역 등을 미처 물어보지 못했던 것이 지금도 아쉽다. 이제 와서 할머니를 찾고 싶어도 도저히 찾을 방법이 없다. 나에게 처음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할머니… 잘 지내는지 지금도 궁금하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알지도 못했던 나에게 할머니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감사하고, 또 나에게 기도를 가르쳐줬던 그 할머니의 헌신과 사랑이 감사하다. 오늘따라 그 집결소에서 만난 할머니의 모습이 그림다. 아마 지금도 하나님의 공주로서 충만한 은혜의 삶을 살고 계시겠지… 천국에서 다시 만날 그 날을 고대하며 그때는 꼭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 + 남북, 9월 내 평양 정상회담 개최 합의



〈8월 13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열린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남측 수석대표 조명균 통일부 장관(왼쪽 두번째)과 북측 수석대표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왼쪽 두번째) 등이 회담을 마치고 악수하고 있다.〉

남북이 9월 안으로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세번째 정상회담이다. 남북은 13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개최된 고위급회담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보도문을 채택했다. 공동보도문에는 그러나 구체적인 정상회담의 일시와 의제, 형식 등이 명시되지 않았다.

이번 남북고위급회담의 한국측 수석대표인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구체적인 일시를 정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평양에서 열리는 행사인 만큼 북한의 입장이 중요하게 고려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회의 직후 북측 수석대표인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은 기자들을 만나 “정상회담 날짜는 회의를 통해 다 (결정)됐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남북 정상회담이 내달 10일이 지나야 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이 내달 9일 정권수립 70

주년을 맞이해 기념 행사를 개최하기 때문에 이같은 일정이 고려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남북은 구체적인 정상회담 개최 일시와 의제 등을 정하기 위해 실무 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다. 청와대도 조만간 남북 정상회담 준비에 돌입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판문점 선언 이행추진위원회를 3차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회로 전환해 준비 작업에 착수한다.

남북은 13일 열린 고위급회담을 통해 판문점 선언 이행 상황도

점검했다. 양측은 군사, 체육, 철도·도로, 산림 등 각 분야에서의 이행 상황을 평가하고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의견도 공유했다. 공동연락사무소 개소와 관련해서는 사무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남북 간 논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개소 일정이 결정될 예정이다.

남북은 철도·도로 연결과 현대화 작업, 이산가족 상봉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긴밀하게 협조하자는 입장도 밝혔다. 10.4 공동선언을 계기로 북한의 예술단이 방한하는 문제도 앞으로 계속 협의할 예정이다. 남북은 장성급회담을 통해 논의되고 있는 내용을 조만간 마무리 짓고 이를 합의서로 채택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참고: RFA, 8월 13일〉

## + 한국, 북한산 석탄 불법 반입 확인...“러시아산으로 위장 반입”



〈노석환 관세청 차장이 8월 10일 오후 정부대전청사 관세청에서 '북한산 석탄 등 위장 반입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북한산 석탄의 한국 내 반입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 한국 정부는 수백만 달러 상당의 북한산 석탄 등 원자재가 러시아산으로 위장돼 한국에 불법 반입됐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가 지난해 10월부터 수사한 북한산 석탄 반입 의심 사례는 모두 9건이다. 조사 결과 한국 내 수입업체 3곳이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북한산 석탄과 선철을 한국으로 불법 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입 규모는 3만 5천여t, 금액은 600만 달러 상당이다. 이들 업체는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 소재 항구로 운송한 뒤 러시아산인 것처럼 원산지를 속여 한국에 반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6년부터 대북 제재로 석탄 수출이 어려워지자 북한의 무역회사들이 러시아 연해주의 나홋카항과 블라디보스토크항에 석탄을 보낸 뒤 서류를 위장해 다른 나라에 수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 정부는 이들 업체가 북한산 석탄이 금수 조치로 가격이 떨어지자, 한국에 들어올 경우 매매 차익이 크다는 점을 노려 불법 반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세관의 검사가 강화되자 일부 석탄의 경우 아예 원산지 증명서 제출이 필요 없는 품목으로 신고해 단속을 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석탄을 한국에 들여오는 과정에서도 홍콩이나 영국, 러시아에 세운 이른바 '페이퍼 컴퍼니' 즉 서류상으로는 존재하는 회사를 앞세워 감시의 눈을 피했다. 다만 북한산 석탄의 경우 북한과 제3국 간 무역을 중개하는 대가로 받은 것이어서 북한에 직접 지급되는 현금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해 채택한 결의 2371호를 통해 북한산 석탄에 대한 전면 수출 금지 조치를 내린 바 있다. 따라서 북한산 석탄을 한국 내에 들여온 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한다. 한국 정부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북한산 석탄을 운반한 선박 4척에 대해선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 제재 위원회에 보고하고 한국 내 입항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또 수입업자 3명과 업체 3곳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는 방침이다.

유엔 안보리 결의상 수입 금지 품목인 북한산 석탄이 한국에 반입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외교적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정부는 다만 이번 사안의 경우 미국과 긴밀히 협의해온 만큼 '세컨더리 보이콧'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세컨더리 보이콧'이란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모든 기업이나 금융기관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조치이다. 청와대도 이날 "한미 양국이 공조와 신뢰 속에서 석탄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며 "한미 간 갈등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직접적인 제재 대상이 되지 않더라도 금수 품목의 반입을 제때 차단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국 정부 차원의 후속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 정부는 재발 방지 대책과 관련해 우범 선박에 대한 선별을 강화하고 필요할 경우 검색과 출항 시점까지 집중 감시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참고: RFA, 8월 10일〉

## ✦ 北美, 정상간엔 '친서외교'... 실무에선 비핵화 · 종전선언 기싸움



북미 간 협상이 두 기류로 진행되고 있어 보인다. 정상간의 친서 교환을 통한 우호 외교가 한 축이라면, 실무진 차원에서는 간간한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다.

미군 유해 송환에 즈음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8월 1일(미국시간·전달시점 기준) 친서를 전달하고 그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답장을 써 주목을 받았다. 김

위원장이 보낸 친서와 트럼프 대통령이 곧 보낼 친서에 대해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2일(현지시간)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이뤄진 공동성명에 나오는 약속을 다루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는 작금의 교착 국면을 돌파하기 위한 '툭다운'(최정상에서 합의한 뒤 아랫급에서 후속협상을 하는 것) 방식의 복원 시도로 보인다.

실제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은 벽에 부딪힌 형국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북한은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협의 이후 조기 종전선언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으나, 그에 대해 미국은 말 그대로 신중론 일색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차례 종전선언 가능성을 언급했으나, 미 행정부 내 실무진의 기류는 그와는 판이하다. 자칫 종전선언으로 자칫 미국의 대북 군사옵션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종전선언에 대해 미 행정부 실무진의 반응은 '시기상조'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다.

미 행정부는 그러면서 북한에 핵 신고와 비핵화 시간표를 달라고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미국은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FFVD(최종적이며,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라는 새 표현으로 바꾸기는 했지만 '비핵화 우선주의'에는 변함이 없어 보인다. 북한이 국제규범(안보리 결의)을 위반해가며 핵을 개발한 만큼 '맞교환' 차원 보다는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 대북 협상에 임하고 있다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 리용호 북한 외무상과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모두 참석하면서 북미 대화의 돌파구가 열리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었지만 결론적으로 큰 진전 없이 양측의 입장을 재확인한 수준에 그쳤다.

중장기적으로 보면 해법이 없지는 않다. 해리스 미 대사가 인터뷰에서 종전선언을 위해 북한이 취할 조치의 '출발점'으로 '완전한 핵시설 신고'를 거론했고, 북한 역시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해왔다는 점에서 둘 간에 접점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3일 "미국이 종전선언에 대한 '바'를 낮춘 것으로 보인다"며 "친서 교환 건도 있어 2차 정상회담이든 실무회담이든, 장관급 회담이든 어떤 트랙에서든 대화가 재개될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그러나 "북한이 신고-검증-폐기로 연결되는 미국의 비핵화 방식을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참고: 연합뉴스, 8월 3일〉



## ✦ 문대통령 광복절 경축사… 베일벗은 남북·동북아 공동번영 구상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 열린마당에서 열린 제73주년 광복절 및 정부수립 70주년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제73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동북아 6개국과 미국이 함께하는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를 제안했다. 또 평화가 정착되면 경기·강원 접경 지역에 통일경제 특구를 설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한 광복절 경축사에서 “경의선과 경원선의 출발지였던 용산에서 저는 오늘, 동북아 6개국과 미국이 함께하는 ‘동아시아철도공동체’를 제안한다”며 “이 공동체는 우리의 경제지평을 북방대륙까지 넓히고 동북아 상생번영의 대동맥이 되어 동아시아 에너지공동체와 경제공동체로 이어질 것이고 동북아 다자평화안보체제로 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철도, 도로 연결은 올해 안에 착공식을 갖는 것이 목표”라며 “‘철도와 도로의 연결은 한반도 공동번영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고 평화가 정착되면 경기도와 강원도의 접경지역에 통일경제 특구를 설치할 것”이라며 “많은 일자리와 함께 지역과 중소기업이 획기적으로 발전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책기관의 연구에

따르면 향후 30년간 남북 경제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최소한 17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며 “전면적 경제협력이 이뤄지면 그 효과는 비교할 수 없이 커질 것”이라고도 언급했다.

그는 북미 회담과 관련해 “한반도 평화와 번영은 (북-미) 양 정상에 세계와 나눈 약속”이라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행과 이에 상응하는 미국의 포괄적 조치가 신속하게 추진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또 “저는 한반도 문제는 우리가 주인이라는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남북관계 발전은 북-미관계 진전의 부수적 효과가 아닙니다. 오히려 남북관계의 발전이야말로 한반도 비핵화를 촉진시키는 동력”이라고 한반도 운전자론을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날 연설에서는 문 대통령은 ‘여성 독립운동’을 자세히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또한 “친일의 역사는 결코 우리 역사의 주류가 아니었다”고 말하며 이어 “우리의 독립운동은 3·1운동을 거치며 국민주권을 찾는 치열한 항전이 있었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우리의 나라를 우리의 힘으로 건설하자는 불굴의 투쟁을 벌였다”면서 ‘임시정부 법통’을 거듭 강조했다.

## ✦ 미군유해 55구 65년만에 하와이로 봉환



〈북한에서 이송해온 한국전쟁 미군 전사자 유해 55구가 1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하와이 주 오아후섬 진주만 히캄 공군기지에 안착한 가운데 마이크 펜스(왼쪽) 부통령과 그 옆 필립 데이비드슨 미군 인도태평양사령부 사령관이 고인들에게 경례 등으로 예를 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모든 전사자·실종자 유해가 고향에 올 때까지 트럼프 행정부는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북한에서 이송해온 한국전쟁 미군 전사자 유해 55구가 1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하와이 주 오아후섬 진주만 히캄 공군기지에 안착했다. 미군은 이날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 필립 데이비드슨 미군 인도태평양사령부 사령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미군 전사자 유해 봉환식을 개최했다. 지난달 27일 북한에서 이송해온 유해 55구는 한국시간으로 1일 오후 오산 미군기지에서 치러진 송환식을 마친 뒤 하와이 히캄 기지에 도착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를 대표해 하와이로 날아온 펜스 부통령은 "혹자는 한국전쟁을 잊혀진 전쟁이라고 불렀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영웅들이 결코 잊혀지지 않았음을 증명했다. 오늘 우리 장병들이 고향으로 간다"고 말했다.

한국전 참전용사의 아들인 펜스 부통령은 "내 아버지, 에드 펜스 중위는 한국전쟁에서 싸우고 가슴에 훈장을 달고 돌아왔다. 아버지는 30년간 진정한 영웅은 집에 돌아오지 못한 이들이라고 일러왔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도착한 이 수송기에서 누가 나오든지 간에 우리 실종된 전사자들의 가족을 위한 희망의 계절이 시작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하와이 히캄기지에서는 현지에 있는 미 국방부 전쟁포로 및 실종자 확인국(DPAA)이 DNA 검사 등을 통해 미군 유해에 대한 신원확인 작업을 하게 된다. 존비드 DPAA 과학분석국장은 "예비조사 결과 북한에서 송환된 유해는 과거 발굴한 미군 병사의 것과 대부분 일치한다. 이 시점에서 한국전쟁 전사자와 관련돼 있다는 점을 의심할 이유는 없다"라고 말했다.

이번 미군 유해송환은 지난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북미정상회담 합의에 따른 것이다. 북미 양측은 지난달 15일과 16일 판문점에서 미군 유해송환과 관련해 장성급 회담과 실무회담을 각각 개최해 한국전쟁 당시 북한 지역에서 전사한 미군 유해 55구를 정전협정 체결일인 7월 27일 항공편으로 송환키로 합의한 바 있다. 유엔사는 장진호 전투 지역(1천24구)과 운산 및 청천 전투 지역(1천495구), 비무장지대(1천여 구) 등 6·25 전쟁 주요 격전지와 전쟁포로 수용소가 있던 지역(1천200여 구) 등에 약 5천여 구의 미군 유해가 남아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참고: 연합뉴스, 8월 2일〉

## ✦ 美 WSJ 신문, "러시아, 북한 노동자 1만명 이상 신규 고용허가"



〈북한 노동자들이 러시아 극동 블라디보스톡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모습(VOA)〉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를 위반하며 북한 노동자 입국을 허용하고, 신규 고용허가를 내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일 입수한 러시아 내무부 등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9월 이후에도 1만 명 이상의 새로운 북한 노동자들이 러시아에 등록했다고 보도했다. 또 올해 북한 노동자에 대해 발행된 신규 고용허가도 최소 7 백건에 달한다고 전했다.

지난해 9월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2375호는 북한 해외 노동자에 대한 신규 노동허가를 전면 금지했고, 2019년 말까지 모두 귀국시키도록 하고 있다.

신문은 또 북한인을 고용하는 일부 기업들은 북한과 합작회사 형태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역시 명백한 유엔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러시아 정부 공식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러시아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는 약 2만4천명 수준이다.

## ✦ 제21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 개최



〈제21차 이산가족 상봉행사 1회차 첫날 (20일) 열린 이산가족 단체상봉 모습〉



〈남북 이산가족 단체상봉 행사에서 남측 이금섬(92) 할머니가 아들 리상철(71)을 만나 기뻐하고 있다.〉

제21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8월20일 금강산에서 열렸다. 1, 2차로 나누어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서 1차 상봉 행사로 89명의 남측 이산가족이 북한 측 가족 185명을 만났다. 남북 이산가족들은 20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금강산호텔에서 첫 단체상봉을 갖고 감격스러운 해후를 했다. 23일부터는 2박3일 동안 북한 측 이산가족 83명과 한국 측 가족이 금강산에서 같은 방식으로 상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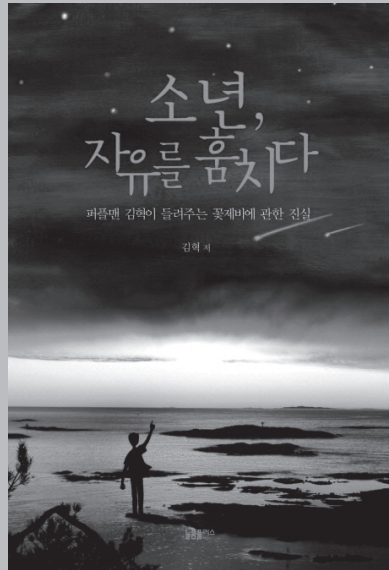
이산가족 상봉 행사는 첫날 단체상봉에 이어 둘째 날 오전 개별상봉 및 오후 단체상봉, 셋째날 작별상봉 및 공동중식으로 이어진다.

특히 이번 이산가족 상봉행사 간에는 둘째날 개별상봉에 이어 중식을 가족끼리 식사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각 객실에서 도시락으로 식사하는 것이다. 이산가족 상봉 행사 때마다

개별상봉 시간은 있었지만, 가족끼리만 오붓하게 식사를 하는 건 처음이다.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지켜본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산가족 상봉을 더욱 확대하고 속도를 내는 것은 남과 북이 해야 하는 인도적 사업 중에서도 최우선적인 사항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정기적인 상봉 행사는 물론 전면적인 생사확인, 화상상봉, 상시상봉, 서신교환, 고향방문 등을 강조했다.

## 북한 이해를 위해 더 읽을만한 책



제목: 소년, 자유를 훔치다

저자: 김혁

출간일: 2013년 4월 3일

출판사: 늘품플러스

가격: 14,500원

북한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 중 하나는 가난이다. 특히 고난의 행군으로 굶어 죽어간 사람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지금은 그때보다는 경제 사정이 나아졌고 장마당을 통한 생계 유지가 가능해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가난한 사람은 생활이 어렵다. 최근에도 산악지역 거주 주민 중에 굶어 죽는 사람이 나온다고 하고,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심각한 고리대에 시달리며 국가와 빚쟁이들에게 소출의

대부분을 빼앗긴다고 한다. 특히 경제재제의 여파는 북한 경제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정치는 엘리트와 권력자가 하는데 고생은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하고 있다.

그 중 꽃제비는 고난의 행군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람들이다. 도저히 국가의 배급으로는 생계를 해결할 수 없게 된 사람들과 극심한 기근으로 인해 부모를 잃은 자녀들이 거리로 내몰렸다. 어떻게 해서든 살아야 하겠다는



절박함으로 거리에서 쓰레기를 뒤지거나 다른 사람의 것을 훔쳐서 먹고사는 이들... 비록 북한의 사정이 이전보다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최근 국경지대에 꽃제비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누군가는 지금도 여전히 생존을 위해 거리를 뒤지고 있다.

자기 자신이 바로 그 꽃제비였던 탈북민 김혁의 책 ‘소년, 자유를 훔치다’는 꽃제비의 생활상을 생생한 증언과 함께 구체적인 연구 조사를 통해 보여주는 책이다. 이 책의 저자 김혁은 고난의 행군 시기 꽃제비로서 방황하면서 모진 고초를 겪었고 회령 전거리교화소에 수감되기도 했다. 이후 중국에서 선교사님을 만나 복음을 받아들이고 한국에 들어온 그는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에서 ‘북한 꽃제비 연구’로 석사 학위를 받고 북한 인권 문제 개선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독특한 저자의 이력만큼이나 이 책은 독특한 구성을 하고 있다. 먼저 처음 절반은 본인의 이야기를 풀어놓았다. 북한에서의 꽃제비 생활, 그 가운데 겪었던 여러가지 비극적인 일들, 그리고 몽골을 통해 탈출하여 한국에 들어오기까지의 경험을 솔직한 문체로 기록했다. 기근 이전부터 있었던 꽃제비들의 모습과 기근으로 인해 온 가족이 겪었던 어려움. 다양한 종류의 꽃제비들의 생존 방식 등 꽃제비들이 어떻게 생겨났고 어떻게 생활하는지에 대해 자신의 경험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다. 또 전거리 교화소에서 겪었던 고초와 어려움, 그리고 수감된 죄수들의 비참한 현실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다.

뒷부분에는 자신이 발표한 ‘북한 꽃제비 연구’ 논문의 내용을 정리하여 수록했다. 논문형식이라 딱딱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찬찬히 읽어보면 증언이나 간증에서는 느낄 수 없는 꽃제비를 통해 북한체제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도모하는 저자의 관점에 놀라게 된다. 흔히 꽃제비는 단순히 가난으로 인해 생겨난 불쌍한 사람들로 생각하기 쉽지만, 저자는 꽃제비가 폐쇄적인 북한 체제 속에 유별난 독특한 존재라는 사실을 강조한다. 북한 내 모든 사람들은 당국의 직간접적 통제 속에 생활하고 있다. 북한 당국은 배급이라는 경제적 통제, 거주지와 직장 및 각종 사회단체



〈2010년 10월 방송된 KBS 스페셜에서 취재한 23세 꽃제비 여성〉

조직을 통한 사회적 통제, 그리고 보위부와 경찰에 의한 물리적 통제를 통해 주민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저자는 북한에도 당국의 통제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 사람들이 바로 꽃제비다. 꽃제비들은 경제적으로나, 각종 사회조직으로나, 또 경찰에 의한 통제에서도 벗어나 있다. 거주도 일정치 않고 배급 없이 생활하며 당연히 어떤 사회 조직에도 포함 되어있지 않은 이들을 어떻게 해서든 당국의 통제권으로 포함시키려는 노력과 이에서 벗어나려는 꽃제비들의 모습을 저자는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제시하고 있다. 물론 꽃제비가 어떤 의미 있는 정치 세력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지만,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생각하기 어려운 꽃제비의 사회적 의미를 풀어낸 것은 큰 의미가 있다.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강력한 체제와 거대 담론들 속에서 약자들은 쉽게 소외당한다는 사실이다. 최근 남북 관계가 개선이 되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가 이어지고 있다. 북핵 문제 해결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필수적인 일이다. 그렇지만 평화를 위한 노력이 단순히 정권 간의 정치적인 성과를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진정한 한반도의 평화가 이루어지고 그 열매가 북한에 소외된 약자들에게까지, 꽃제비에게까지 주어지길 바라며 책의 일독을 권한다.

## 북한 기도 제목

1.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미 정상회담에 이은 후속 협상이 계속 진행중이지만 북미간의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아직까지는 명확한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협의와 대화가 실질적인 핵폐기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이 문제에 관련된 각국 리더들과 주요 협상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지혜를 모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2. 한반도의 정의와 평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진정한 평화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의 소식이 하루 속히 북한 전역에 전파되고 한반도가 복음의 정신으로 하나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창조하신 그 형상을 회복하고 억압과 폭력이 중단되도록 기도합니다. 특별히 북한이 우상숭배를 포기하고 바람직한 변화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3. 북한 선교 현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몇몇 국가들은 북한 선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선교 현장입니다. 그렇지만 북한 선교를 방해하는 많은 법률과 통제들이 있을 뿐 아니라 그 숫자가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북한 선교에 장애가 되는 정책이 수정되고 선교사님들이 안전한 가운데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특별히 최근 제정된 종교 탄압적인 법률이 하루속히 재개정, 완화, 혹은 폐기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4. 선교 현장의 선교사님과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은밀한 가운데 온갖 위험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알아주지 않고 오히려 핍박 받기 일쑤임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사명을 감당하는 이들의 헌신이 북한 선교를 이루는 기초임을 믿습니다. 선교사님과 사역자들이 무고하게 해를 입거나 추방, 구금, 벌금 등의 처벌을 받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맡겨 주신 영혼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복음의 능력과 지혜가 충만하도록 기도합니다.

5. 북한의 기독교 박해 중단을 위해 기도합니다. 기독교를 미제의 종교로, 기독교인을 스파이로 몰아 죽이고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던 북한의 기독교 박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북한에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성도들이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여전히 북한에 억류되어 계신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를 비롯하여 북에 납치되거나 잡혀간 탈북민 출신 사역자 및 조선족 사역자들이 하루속히 석방되도록 기도합니다. 정치범 수용소가 하루 속히 폐쇄되고 무고한 형벌 가운데 있는 수용소의 성도들이 하루 속히 풀려나도록 기도합니다.

## 북한 기도 제목

6.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부적으로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북한의 움직임 속에 지하교회는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신앙을 숨기고 생활하는 북녘의 성도들의 안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심각한 박해 속에서도 성도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신앙이 성장하며, 고단한 생활속에서도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라디오 복음 방송을 비롯해서 성경과 복음 서적 등 신앙 자료들이 계속해서 지원되고 또 생존을 위한 생활 지원이 원활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7. 대북 라디오 선교방송을 위해 기도합니다. 매일 밤마다 복음의 기쁜 소식이 철책 너머 북으로 전파를 통해 송출되고 있습니다. 발각될 위험을 무릅쓰고 은밀하게 라디오를 청취하는 성도들과 주민들에게 라디오는 희망의 소리입니다. 송출되는 전파가 깨끗한 음질로 현장에 전달되도록 기도합니다. 오픈도어 라디오 사역을 비롯하여 극동방송과 북방선교방송 등 동역하는 라디오 사역 단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또 수고하는 사역자들과 봉사하시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충만하도록 기도합니다.

8.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한국 교회를 향해 한반도 복음화와 통일의 그날을 준비하라는 신호를 보내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급격한 정세 변화에 비해 교회 현장에서 북한이나 통일은 아직 너무 먼 주제인 듯합니다. 한국 교회가 장기적인 안목으로 통일의 때를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고 세상의 가치가 아닌 복음의 가치를 따라가는 교회가 되도록 회개와 회복의 역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가치를 성취해가는 교회가 되도록 회개와 회복의 역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한국 오픈도어**

전세계 박해받는 교회를 섬기는 오픈도어선교회

서울시 동작 우체국 사서함 56호 우편번호 07056

\* TEL 02-596-3171

\* Home Page [www.opendoors.or.kr](http://www.opendoors.or.kr)

\* E-mail [info@opendoors.or.kr](mailto:info@opendoors.or.kr)

■ 후원계좌 (북한선교)

국민은행 (한국오픈도어선교회)

029301-04-169183

북한월간개발소식 / 등록일 : 2010년 9월 27일 / 등록번호 : 성북, 라 00067 / 발행년월일 : 2018년 9월 1일

# 한국 오픈도어선교회 사역자 모집(전임)

전 세계 박해받는 교회와 성도들을 돕고 믿음 안에 굳세게 세우는 일에 헌신하여 사역하고 있는 한국 오픈도어선교회는 다음과 같이 북한선교에 헌신할 사역자를 구합니다.

## 모집인원

현장 선교사(여성 사역부분 : ○명 / 일반 사역부분 : ○명)

- ▶ 주요업무 : 선교회에서 지정하는 현장사역을 수행 (개별 협의)
- ▶ 교회 및 노회(지방회)의 인정을 받는 선교사로서 결격사유가 없는 분
- ▶ 교육부 인가의 신학교에서 목회학 석사학위(M. div)를 받은 분
- ▶ 중국어 가능자 우대
- ▶ 여성사역부분의 경우 여성만 지원 가능하며 독신자 우대
- ▶ 고난받는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열정이 있으며, 특히 북한선교에 헌신된 자
- ▶ 연령 : 45세 미만 (예외 가능)

## 제출서류

- ▶ 이력서 및 신앙고백서
- ▶ 추천서 2부, 최종학력 증명서 및 관련증명서 사본 (면접 시 지참)

## 기관소개

- www.opendoors.or.kr 와 www.opendoors.org 사이트 참조
- 사역 조건 - 국내근무 : 월~금, 09:00~18:00, 4대보험적용, 급여는 개별 협의  
- 선교 파견자는 선교회에서 사역비를 지원하며 구체적 내용은 개별 협의함
- 모집기한 : 구인시까지
- 문 의 처 : 이제나 간사 : 010-4668-6356 / 이메일: info@opendoors.or.kr
- 서류제출 : 이메일 info@opendoors.or.kr
- 우 편 :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 9길 10 (영성빌딩) 4층 한국오픈도어선교회



**한국 오픈도어**

전세계 박해받는 교회를 섬기는 오픈도어선교회

(07056) 서울시 동작 우체국 사서함 56호 ■ TEL 02-596-3171 ■ info@opendoors.or.kr ■ Home Page www.opendoors.or.kr

■ 후원계좌(북한선교) 국민은행 (한국오픈도어선교회) 029301-04-169183 ■ 북한월간개발소식 / 등록일 : 2010년 9월 27일 / 등록번호 : 성북, 라 00067 / 발행년월일 : 2018년 9월 1일